

2018년 11월 16일



세대를 잇는 위임

-코디 아처

저는 여러 해 동안 청소년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 직함이 성경에는 없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은 다들 아시듯 현대 교회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이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역이 다음 세대를 제자 삼고, 그들에게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라는 예슈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세대는 주님의 행하신 일을 다른 세대에 찬송할지라.” 시 145:4

“내가 왕의 이름을 만대에 기억나게 할 것이므로 세상 민족들이 영원히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시 45:17

이 구절들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시편 구절에 따르면, 세대를 잇는 제자화에 있어 각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다음 세대를 제자 삼는 일이 특별한 부르심, 성품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요구된다고 오해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는 책임을 맡지 아니하고 몇 사람에게만 속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이 지상명령의 진척을 막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기도록 경주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6-7

젊은이들을 제자 삼는 주된 책임은 그들의 부모님 손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세대 전체가 다음 세대를 제자로 만들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자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경기장에서 경주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통계에 따르면, 믿는 이들 대다수가 그들이 20세가 되기 전에 예수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세대에 대한 투자가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가장 전략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대부분의 교회에서 왜 어린이 및 청소년 사역에 최우선 순위를 두지 않을까요? 우리가 사소한 것에 더 주력하고 주요한 것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마 28:19), 예수아께서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민족들’은 헬라어로 에뜨노스, 즉 모든 민족 집단을 의미합니다. 모든 민족 집단에는 아기들, 어린이들, 청소년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날 세계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입니다.

세대간의 상호의존

제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의미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저는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그분들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분들과 기쁘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투자하신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정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투자한 것은 부차적인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너무 나이가 많고 너무 바쁘다고, 그들과 공감하는 데에 전혀 소질이 없다고 하는 거짓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러기 보다는, 일어나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웁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투자하고, 제자로 만들고, 크든 작든 그들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전해주는 일을 멈추지 맙시다.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마음을 맞추라

아셰르 인트레이터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바르도록 정렬시키는 기도에 대해 나눕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